

대덕구 2008 해외배낭여행

연수보고서

신책 찾아 삼만리 Fly To Japan

2008. 06

류지홍 · 류형식 · 육지영 · 김윤희

연수팀 Profile

팀 명

시책 찾아 삼만리 – Fly to Japan

연수목적

일본 거리 체험을 통한 도시경관 벤치마킹
(우리 대덕구를 더욱 쾌적하게, 깨끗하게, 푸르게, 아름답게,
편리하게 만들 수 있는 시책 발굴)

연수기간

2008. 4. 26(금) ~ 5. 2(토) (6박 7일)

연수지역

일본 – 오사카, 고베, 교토, 도쿄

연 수 자

류지홍, 류형식, 옥지영, 김윤희 (총 4명)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연령	역할분담
경영기획팀	행정 7급	류지홍	남	42	팀장
세무팀	세무 7급	류형식	남	35	걸어다니는 네비게이션
복지지원팀	사회복지 8급	옥지영	여	34	Assister
목상동	사회복지 8급	김윤희	여	30	경리

연 수 발 자 취

일자	도시명	교통편	탐험내용	비고
제1일 4.26 (토)	인천 오사카 고베	항공 지하철 버스	·인천국제공항 출발 ·간사이국제공항 도착 ·숙소에 여정풀기 ·고베 도시경관(야경)체험 – 차이나타운, 포트타워, 모자이크건물	날씨: 맑음
제2일 4.27 (일)	오사카 교토 오사카	버스 도보	·교토 도시경관(마루야미공원) 체험 ·교토 니조성, 청수사 방문 ·오사카로 이동후 도톤보리 시찰	날씨: 맑음
제3일 4.28 (월)	오사카	지하철 버스	·오사카성(역사박물관 포함) ·덴포잔 ·WTC 전망대 방문 ·도쿄로 이동(야간버스)	날씨: 맑음
제4일 4.29 (화)	도쿄 하코네 도쿄	지하철 버스	·도쿄 도착 ·하코네로 이동 ·텐잔[天山] 온천 ·오와쿠다니계곡(화산) ·도쿄로 이동	날씨: 맑음
제5일 4.30 (수)	도쿄	버스 지하철	·신주쿠 세무서(벽면녹화현황 시찰) ·시부야쿠 메이지신궁 ·치요다쿠 – 야스쿠니신사, 금연거리 ·고토쿠 토요스- 라라포트 : ‘pet 공원’‘어린이직업체험관 키자니아’ ·고토쿠 오다이바 – 비너스포트, 레인보우브릿지 ·도쿄도청 야경	날씨: 맑음
제6일 5.1 (목)	도쿄	지하철 버스	·요코야마	날씨: 맑음
제7일 5.2 (금)	도쿄	기차 항공	·우에노, 아사쿠사 센소지 ·나리타공항 출발(18:05) ·인천국제공항 도착	날씨: 약간의 비 후 깜

연 수 내 용

오사카

신세카이

- 숙소가 위치한 곳
- 우메다나 난바 같이 재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오사카의 옛 풍경이 그대로 보존
- 도톤보리나 난바에서 보던 상점과 달리 바가지 요금이 있어 보이지 않았다.
▷ 멀리보이는 쓰덴카쿠(通天閣) 탑 : 일본에서 최초로 세워진 탑
(1912년, 후에 1956년 재건축)



★동네 작은 가게지만 모든 종업원들이
두건을 쓰고 있었다
우리도 작은 것부터 모범을 보여 깨끗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미지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야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해본다.

오사카성

-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에 있는 산성(입장료 ¥600)
- 1583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축성, 두 차례의 소실 후 1931년 재건축
- 히데요시에 대한 설명과 그와 관련된 물건 등을 볼 수 있었고 꼭대기의 주변 오사카 경치를 볼 수 있었다.
- 천수각 앞에는 1970년 만국박람회를 기념하여 타임캡슐을 묻어 놓았는데 2,098점의 물건 등을 넣어 두었다고 한다. 총 두개를 묻었는데 한개는 이미 개봉했고, 한개는 5,000년 후인 6970년 3월 15일후에 개봉된다고 한다.

★ 오래된 문화재를 잘 간직하고, 관광으로도 개발한 점은 배울 만한 점이다.



▣ 오사카 역사박물관

- 일본 오사카부 오사카시에 박물관(입장료 ₩600)
- NHK 사옥으로 보통 10층에서 7층까지 관람 할 수 있다.
- 나니와 왕조의 옛 궁터 위에 세워진 박물관으로 층별로 다양한 역사 테마가 구성되어 있다.
- 역사박물관의 특징은 터치스크린, 유물에 대한 해설을 해 주는 영상 시설이 존재한다.
- 또 한가지 특징은 8층에는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었다. 자석처럼 만들어진 조각조각 발굴된 도자기 조각을 맞춰 보기도하고 오사카 옛 건물을 모형에 맞춰 퍼즐을 맞춰 볼 수 있다.
안내원이 직접 해 보며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박물관 관람이 딱딱하기보다는 재미를 느끼며 관람할 수 있었다.
- 관람이 끝날즈음에는 시험지를 나누어 주었다. 박물관에서 보고 배운것에 대한 테스트라고 할까? 문제를 풀어 제출하면 경품이 있는 듯 했다.

★ 관람자 중심으로 꾸며놓은 역사박물관은 자루하거나 딱딱하기보다는 흥미롭게 관심을 갖고 관람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놓았다.

시책발굴
Idea bank!



오사카 WTC 코스모 타워 전망대

- WTC 코스모타워 전망대(55층)에서 바라본 오사카
- WTC 코스모타워 전망대는 원래 입장료 800엔짜리 전망대지만, 비가 오는 날에 "비 오는 날의 티켓"이란 이벤트가 있어 무료로 올라 갈 수 있다고 한다.



오사카 지하철의 친절한 역무원

- 지하철로 이동 중 인상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와서 급히 사진을 찍었다.
- 휠체어 탄 장애인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역무원이 다가와서 엘리베이터 앞에 휠체어 발판을 가지고 서 있다가 문을 열어주고 휠체어가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발판을 대주고 문까지 닫아준 후에야 자리를 이동하였다.

★ 역무원의 이러한 자세는 순간 내 자신을 부끄럽게까지 하였다. 깍듯하고 친절한 역무원의 모습은 지금까지도 가슴속 깊이 새겨있다. 진심으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불편하고 가려운 곳을 긁어 줄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해 본다.



▣ 오사카 숙소 : 화장실

- 우리가 묵은 방은 좁았지만 매우 실용적으로 잘 만들어 놓아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 그 중 화장실이 인상적이었는데 물을 내리면 변기 위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와 손을 씻을 수 있게 만들었고 그 물은 바로 변기로 이어지게 되어 있었다.

★ 지금까지 화장실은 변기에 쓰는 물 따로 손 씻는 물 따로 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이렇듯 생각의 전환은 너무도 간단한 원리로 부족한 자원을 두배로 아낄 수 있다는 걸 새삼 느꼈다.



고베

☒ 차이나 타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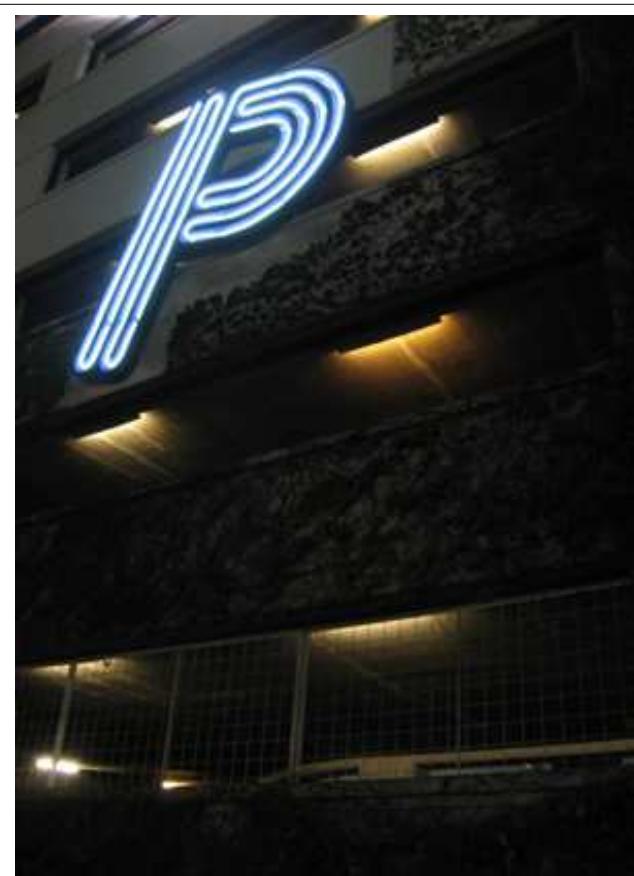
- 가게의 조명은 화려했고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 식당 앞에 줄을 길게 서있는 풍경은 일본 어디서나 쉽게 접할 수 있다.



고베항 야경 – 포트타워, 해양박물관, 모자이크 건물

- 고베는 역시 야경의 도시임을 확인시켜주었다.
 - 빨간색 조명의 포트타워와 녹색조명의 해양박물관, 그리고 유럽풍느낌의 모자이크 상가 건물은 바다와 어우러져 근사한 분위기를 맛볼 수 있었다.
- ★ 특히, 근처의 주차장 타워의 간판과 조명에서 세련된 감각을 느낄 수 있었으며 주차장이지만 주변의 멋진 경관과 잘 어울려 있도록 외관에 신경 쓴 점은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였다.

시책발굴
Idea 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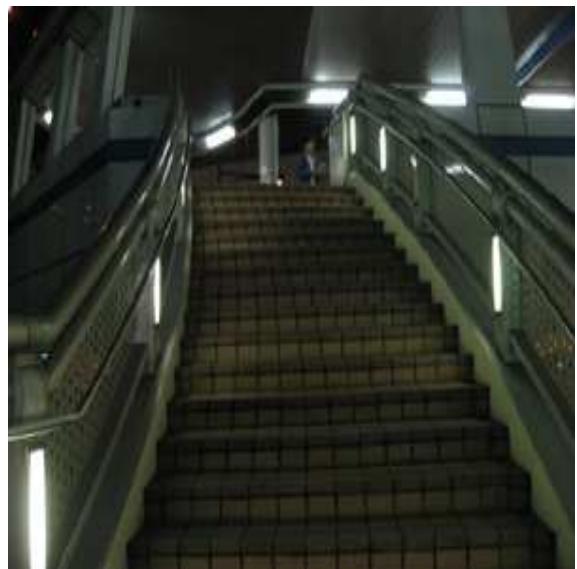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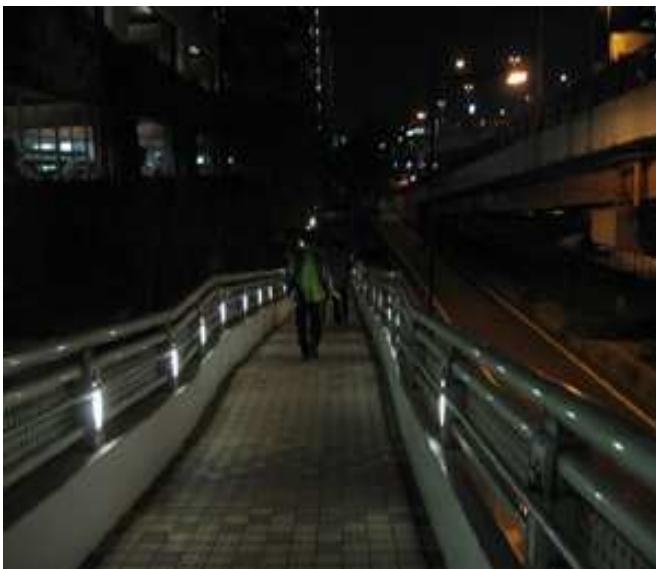


☒ 고베항 야경 – 모자이크 건물

- 고베항의 모자이크 건물은 난간마다 길을 밝혀주는 조명이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설치되어 있었다.

★ 이런 난간의 은은한 조명으로 별도의 전등을 설치할 필요가 없게 하여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운치까지 맛 볼 수 있게 해 주어 우리 대덕구에도 접목해 보면 좋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시책방굴
Idea bank!



교토

☒ 간판과 거리

- **간판** : 동일한 규격, 정해진 위치에 설치되어 깔끔한 거리
- 담배꽁초하나 없는 정결함이 거리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함
- **버스정류소의 예쁜 로고**는 기분을 좋게 해줍니다.



▣ 청수사

- 니넨자카와 산넨자카 양쪽으로 자리잡은 가게들은 아담하고 이쁨
- 일본 고유의 특색이 고루 배어있는 골목.
- 관광버스 타고 청수사만 한번 덜렁보고 떠난다면 이런 골목골목들의 현장은 못봤을 것이다. 100% 자유여행의 묘미가 바로 이런 것 이랄까?

★ 청수사 골목에 놓여져 있는 쓰레기통. 쓰레기통 역시 전통적인 분위기를 살려 만들어 놓은걸 보니 일본인들의 세심함이 느껴졌다.

시책발굴
Idea bank!



하코네

▣ 오와쿠다니계곡(하코네 화산)

- 약 3,000년 전 [하코네 화산]의 마지막 분화에 의해 생겨난 화구
- 유황냄새와 사방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로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 이곳에서 유명한 것 중 하나가 구로타마고(검은달걀)인데 유황온천으로 달걀을 삶아 파는 것이다. 달걀 하나씩 먹을때 마다 7년씩 수명이 늘다고 선전하고 있다. 달걀을 로프로 운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 관광객을 유치하고 하나의 대표상품을 만들어 큰 이익을 내는 이들의 상술은 뛰어나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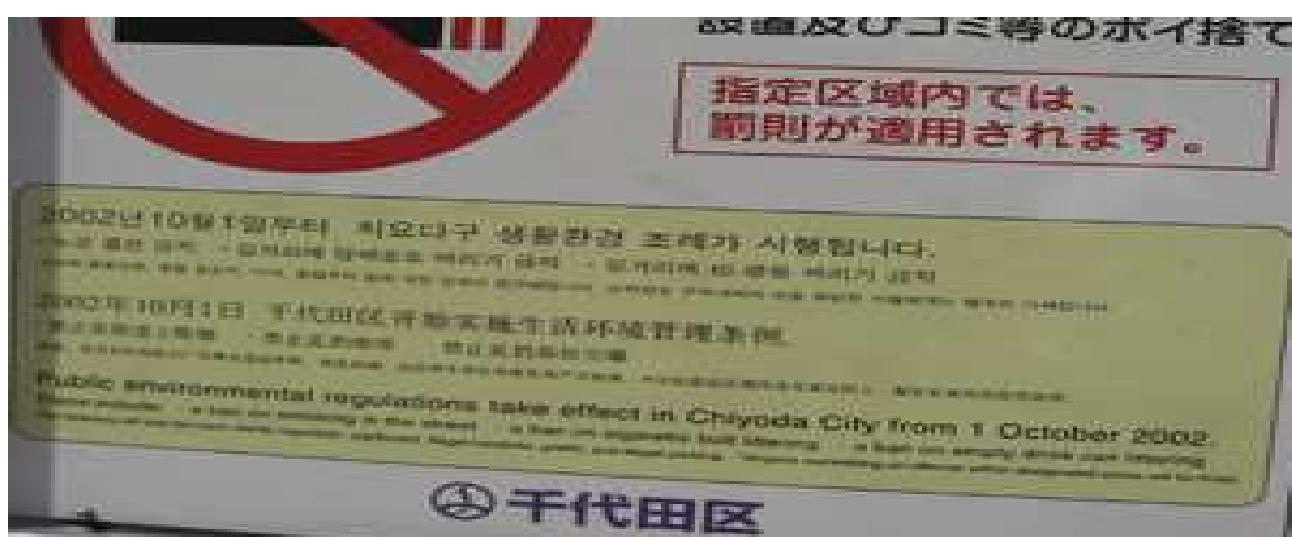


도쿄

☒ 치요다쿠 금연거리

- 많은 기업과 관공서가 몰려 있는 도쿄 치요다구(東京千代田區)에서는 간접흡연을 막기위해 2002년 10월에 「생활환경조례」를 시행했다. 역 주변과 출퇴근로, 통학로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 「노상 금연 지구」로 지정하여 길거리에서의 흡연은 물론 꽁초를 버리는 행위 금지 실시, 위반자에게는 2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그밖에 불법간판, 불법광고지, 낙서, 불법주차 등에 대한 단속도 엄격하여 벌칙이 가해진다.

★그래서인지 이곳 사람들은 개인별 재떨이를 대부분 휴대하고 다닌다.



▣ 치요다쿠 거리

- 치요다쿠는 거리환경에 관심과 조예가 매우 깊은 자치단체인 듯 하다. 금연거리 지정뿐 아니라 거리 곳곳은 세심한 손길을 느낄수 있다.
- 나무심어 놓은 자리에 조명을 설치하였고, 거리 곳곳에 우리의 도시를 푸르고 깨끗하게 가꾸고자하는 포스터 등으로 치요다쿠를 정성스럽게 가꾸고자하는 노력을 엿 볼 수 있었다.
- 또한 일본은 자전거를 애용하는데 횡단보도마다 자전거 횡단보도도 따로 만들어 놓았다 .

★ 거리의 작은 조명, 거리의 아기자기한 지역캠페인, 자전거 횡단보도 등은 우리구에 적용해 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 도쿄 도청 - 도쿄타워 야경

- 도쿄의 여행에서 도쿄 타워를 빼놓는다면 매우 서운한 일일 것이다.
- 도쿄도청의 건물은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기 어려울정도로 매우 높고 무지개 색깔의 조명으로 화려하고 아름다웠다.
- 도쿄도청 50층까지 올라가 전망대에서 야경을 바라보았다. 온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고 도쿄시내의 크고 화려한 건물들과 조명들이 멋지게 빛나고 있었다.
- 도쿄타워에서 도쿄의 야경을 감상하며 이곳이 바로 도쿄라는걸 실감할 수 있었다.



☒ 토요쓰 : 라라포트(Lalaport) – 킷자니아, Pet 공원

- 도쿄 남쪽 지역 토요쓰에 위치한 ‘라라포트’ 쇼핑몰은 5만평 규모에 패션점과 가구점, 어린이 체험학습공간(킷자니아), 스파, 쿠킹스튜디오, 보험숍 등 각종 위락시설이 어우러져 있다.
- 체험학습공간인 킷자니아에서 어린이들은 실제 같은 다양한 직업 체험 뿐만 아니라 리얼한 금융서비스, 인간관계를 학습하는 곳으로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었다.
우리가 간 날도 어린이들이 부모님들과 함께 길게 줄을 서며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 라라포트 옆에는 애완견을 위한 공원이 따로 마련되어 많은 사람들이 애완견과 마음껏 즐겁게 산책하며 노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 우리나라도 애완견을 가정에서 많이 키우고 있지만 아직까지 애완견을 위한 공원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여건이 된다면 애완견과 함께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이 주변에 조성이 된다면 좋은 반응이 있을 거라 생각해 본다.



▣ 오다이바 : 비너스 포트, 레인보우브릿지, 후지TV

- 일본에는 바다에 접해있는 대도시 들이 임해부도심(바다를 매입해 만든)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부도심은 미래형 첨단 도시로 건설되어 있는데, 이 신도시중에서 가장 짜임새 있게 개발된 곳이 도쿄의 오다이바라고 한다.
- 오다이바에는 비너스 포트 쇼핑몰이 있는데 건물안의 조명이 특이하다. 특히 바닥으로 로고가 보이도록 조명을 이용한 점은 참신해 보였다.
- 오다이바의 작은 해변과 그에 어울리는 레인보우 브릿지가 한눈에 펼쳐진다. 레인보우 브릿지는 도쿄와 인공섬 오다이바를 연결하는 다리이다. 영화 '춤추는 대수사선2'의 배경이 되기도 하여 오다이바의 명물중 하나이다. '레인보우 브릿지'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일주일에 일곱 번 조명이 바뀌기 때문이라고 한다.
- 오다이바 해변에는 후지TV건물이 있다. 이곳을 지나치다 계단을 이용한 광고가 특이하여 사진을 찍어보았다.

★ 전장을 통해 쏘은 바닥 조명과 계단 프린팅은 우리지역에도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시책발굴
Idea bank!



건물 녹지조성 : 신주쿠 세무서, 오다이바 주택건물

- 신주쿠 세무서나 오다이바 주택을 보면 건물 외관에 꽃과 나무를 심어놓아 도시경관을 시원하고 더 아름답게 해주고 있었다.



요코하마 공원

- 일본은 큰 규모로 조성이 잘 된 공원들이 참 많이 있었다.
- 일본 공원의 공통적인 풍경은 어느 공원이든 많은 사람들이 잔디위에 뜯자리를 깔고 음식들을 펼쳐놓고 즐겁고 여유로운 오후 한때를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잔디는 보호해야만 하는 존재일 뿐 잔디를 그 이상의 가치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다가온다.

우리도 무조건 “잔디를 밟지 마세요” 라는 팻말을 끊어 놓기보다는 일정한 원칙 속에 공원 잔디에서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연수를 마치며

Epilogue Epilogue

6박 7일 동안 산적한 일들을 뒤로하고
아주 오랜만에 혹은 처음으로
우리는 한국을 떠나았었습니다.

조금더 가까이서
조금더 피부로 일본을 느끼고 싶어
100% 자유배낭여행을 하였습니다.

요즘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주어진 시간동안
갖길 경험을 하고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끼며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조금이나마 함께 일본을 느끼고
구정과 관련한 아이디어 통로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가져봅니다.

-감사합니다-